



## 미 증시, 5월 FOMC 결과를 소화하며 혼조세

### 미국 증시 리뷰

1 일(수) 미국 증시는 3월 ISM 제조업 PMI 부진, 5월 FOMC 경계심리로 제한된 주가흐름을 보이며 출발한 가운데, 5월 FOMC에서의 파월의장 기자회견 전후 변동성이 확대되며 혼조세로 마감(나스닥 -0.3%, S&P500 -0.3%, 다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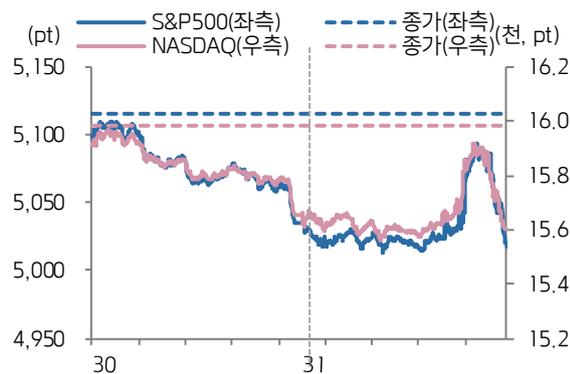
업종 별로는 유틸리티(+1.1%), 커뮤니케이션(+0.8%), 소재(+0.5%) 등이 강세, 에너지(-1.6%), 기술(-1.3%), 필수소비재(-0.6%) 등은 약세.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PMI는 49.2로 전월(50.3) 및 컨센(50.0)을 하회하는 부진한 수치를 기록. 신규주문(2월 51.4 -> 3월 49.1), 생산(54.6 -> 51.3)이 줄어든 반면, 고용(47.4 -> 48.6), 가격(55.8 -> 60.9)은 상승하는 등 세부 항목 상 혼재된 흐름을 기록한 상황.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 성영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평가. 또 6월부터 양적긴축 회수(QT 테이퍼링)를 실행한다고 발표(국채 매각 규모를 기존 월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 MBS는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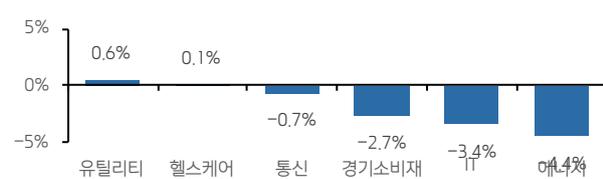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3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았다”, “인플레이션이 2%로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연내 물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과정은 비포장 도로일 것이다”와 같은 언급을 하며, 지난 3월에 비해 다소 매파적인 발언 수위를 높인 모습. 다만,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는 등 시장에서 우려했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92.06	+0.17%	USD/KRW	1,387.08	+0.67%
코스피 200	365.13	+0.18%	달러 지수	105.73	+0.15%
코스닥	868.93	-0.09%	EUR/USD	1.07	+0.48%
코스닥 150	1,442.22	-0.18%	USD/CNH	7.23	-0.28%
S&P500	5,018.39	-1.91%	USD/JPY	154.91	-1.83%
NASDAQ	15,605.48	-2.36%	채권시장		
다우	37,903.29	-1.26%	국고채 3년	3.525	+0.7bp
VIX	15.39	+4.91%	국고채 10년	3.650	-3.5bp
러셀 2000	1,980.23	-1.78%	미국 국채 2년	4.960	-1.6bp
필라. 반도체	4,507.68	-5.42%	미국 국채 10년	4.628	+1.5bp
다우 운송	14,864.63	-2.29%	미국 국채 30년	4.749	+1.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21.22	-1.2%	WTI	79	-4.39%
MSCI 전세계 지수	754.26	-1.48%	브렌트유	83.63	-5.4%
MSCI DM 지수	3,294.01	-1.58%	금	2311	-1.98%
MSCI EM 지수	1,045.52	-0.55%	은	26.49	-3.23%
MSCI 한국 ETF	63.09	-1.45%	구리	455.25	-2.2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76.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FOMC 에서 연내 금리인하 전망 유지했으나 시점에 대한 모호함 유지 2. 베이스 시나리오에 부합, 향후 기업 실적 및 경제지표 이벤트 영향력 확대 예상 3. 국내 밸류업 2차 세미나 및 한국 수출 호조로 대형주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예상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파월의장은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하고 6월부터 QT 감속을 공식화하는 등 시장 예상 대비 완화적이었으나 동시에 1분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았음을 인정하고 고금리 장기화 기조 유지. 베이스 시나리오인 “금리 인하 시작 전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데 더 많은 증거를 입수하기 원함 + 연내 금리인하 전망 유지 but 시점에 대해 모호함을 남겨놓는 것”에 부합하는 결과였다고 판단. Fed Watch 상 금리인하 시작 시점은 12월에서 11월로 앞당겨짐.

인플레이션에 대해 올해 1분기 진전이 부족했다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재상승을 고려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언급. 장기적으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기존 전망 유지. 현재 금리 수준은 충분히 제한적이며 노동시장은 수요 측면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상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의 초점은 제한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

파월의장의 기자회견 전후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이유는 ISM 제조업 PMI 49.2(예상 50, 전월 50.3)로 예상치를 하회하며 다시 위축 영역으로 진입, AMD, 슈퍼마이크로 등 AI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 등 혼재된 결과에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ISM 제조업 지수의 경우 헤드라인 지수는 하락했으나 물가지수가 전월 55.8에서 60.9로 큰폭 증가하며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는 결과. 실적의 경우 AMD(-8.91%) 1분기 매출이 54.7억달러(예상 54.6억달러) 달러, EPS 62센트(예상 61센트)로,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으나 주가는 급락. AI 데이터센터 구축업체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14.03%) 매출 38.5억달러(예상 39.6억달러)로 예상치를 하회, 2Q24 가이드스 51~55억달러(예상 48.7억달러)로 상향했음에도 주가 급락. 즉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 강도에 따라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 급락이 나타나는 현상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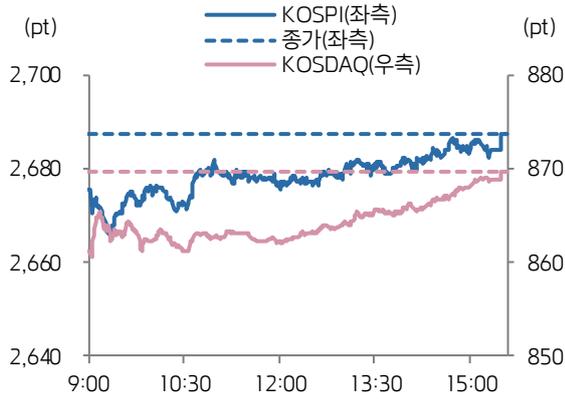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연준이 미 경기가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초점은 금주 고용보고서로 이동. 예상치 상회할 시 금리인하 전망 후퇴하며 하방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이미 5월 FOMC가 3월보다 매파적일 가능성은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며 쿨컴, 애플 등의 실적 영향력 확대될 것으로 예상.

30일(화) 국내증시는 FOMC를 앞두고 위험선호심리 위축되며 중소형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음에도 삼성전자 호실적에 지수 하단 지지되며 혼조세 (KOSPI +0.17%, KOSDAQ -0.09%)

금일에는 FOMC 해석을 두고 혼조세를 보인 미증시,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가 상단을 제한하겠지만, 금일 예정된 밸류업 2차 세미나 및 한국 수출 호조로 대형주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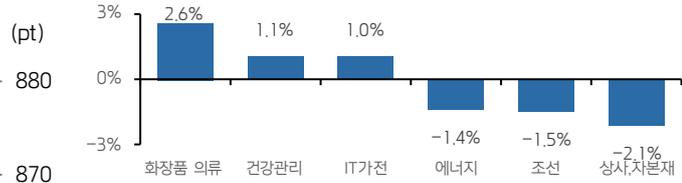
4월 수익률 코스피 -2.0%, 코스닥 -4.0%로 약세 마감. 4월 들어 3주 연속 하락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YTD 수익률은 각각 1.39%, 0.27%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음. 한국 4월 수출은 YOY 13.8%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 기록. 자동차 수출 67억 9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액을 경신, 반도체 99억 6천만달러로 YOY 56.1% 증가. 금반 실적 시즌에서 ASML, 인텔, AMD, 슈퍼마이크로 등 AI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다소 부진했으나 AI 전방사인 빅테크의 수요 및 실적은 견고함을 확인. 호실적 발표 및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코멘트한 아마존의 시간외 3%대 강세는 반도체 투자 심리에 긍정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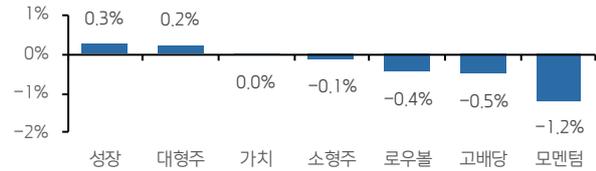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분석 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